

새만금 군산, 대형 병원이 없다

삼성 등 대기업 투자유치 급성장에 유동인구 30만 도시

3차 진료기관 없어 중증 환자 전주·의산 등서 치료 불편

새만금에 삼성과 현대조선, OCI 등 대기업의 투자유치가 이따르고 있으나 군산시 의료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과 경기도, 울산 등 대도시에 살다가 군산으로 이사를 온 직장인들은 실제 유동인구가 30만명에 가까운 군산에 제대로 된 3차 진료기관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군산시는 지난 2003년 2400여명 등 2006년까지 인구가 줄었지만 현재 중공업과 두산 인프라코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2008년에는 3288명이 증가한 신종 발전기능성이 큰 도시다.

이처럼 군산시의 투자유치 급성장

은 세계적인 불황속에서도 괄목할만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은 오히려 인구 대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장 국가공단에 근무하는 최선필(37)씨는 “울산에서 살다가 직장을 따라 군산으로 이사 왔다”며 “부친이 심장 질환 있어 정기적으로 대형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하는데 군산에는 대형병원이 없어 인근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간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또 “군산 규모 도시에 3차 진료기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동료들 역시 응급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봐 아내와 애들은 다시 큰 도시로 이사를 보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군산지역의 경우 원광대병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군산 의료원(430 병상)이 시내 병원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양·한방 2

차 병원인 이곳은 40명의 전문의가

가정의학과와 내과, 정형외과, 음금

의학과를 진료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또한 심장질환과 뇌질환 등 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없어 1분 1초를 더투는 중증 환자들이 제

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인근 익산이나 전주로 후송된다 사망하거나 악화돼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중증 환자를 제때에 진료할 수 있는 3

차 진료기관이 절실히 실정이다.

지난해 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현 문

동신 시장이 ‘3차 진료기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군산시 또한 3차 진료기관 유치를 위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유치를 추진했지만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전북대병원 새만금 군산 분원 설립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군산시를 제외해 수포로 돌아갔다.

주부 강경선(46)씨는 “군산시의 고입 선발고사 점수가 인근 익산이나 전주보다 높았다는 것을 방송에서 들었다”며 “이처럼 군산시 교육의 질 등은 높아지는데 왜 의료서비스는 그대로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목포가 목포의 의해 설립을 주진하는 것처럼 군산에 의해 설립추진이나 민간 대형병원의 3차 진료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박금석기자 knews@



복사꽃 속아내는 분주한 농심

무주군 무주읍 유효미를 한 복숭아밭에서 부부가 정담을 나누며 복사꽃 속아내는 작업에 한창이다. 올해 들어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낮은 이상기온으로 복사꽃 개화시기가 10여 일 늦어 꽃 속아내는 작업도 늦어졌다.

/연합뉴스

정읍 돼지

무항생제 축산물

전북 최초 인증

‘정읍 돼지’가 전북 최초로 돼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2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지역 철보면 모래틈 농장 권명순씨 등 양돈 7농가(11개 농장)가 (사)한국 유기농업 협회로부터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다.

이들 농가들은 항생제 대신 콩, 매실, 배, 어성초 등의 농업부산물을 1년간 발효시킨 효소액과 복합 생균제 등 천연 면역증강제를 활용해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번 인증은 한국 유기농업 협회의 개별농가에 대한 2년간의 철저한 컨설팅과 엄격한 심사를 거친 성과이다. 특히 무항생제 인증농가들은 항생제 축산물유통 전문회사인 농업회사 ‘아리수 푸드’를 설립, 현대백화점 등에 입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올해 5개 농장에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올해도 친환경 유기축산 시범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 등에 모두 35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전주시내버스 146일만에 정상 운행

조합원 복직 등 합의안 가결… 노조 업무 복귀

민주노총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144일의 파업을 마무리 짓고 2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시내버스가 완전 정상화했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시내버스 조합원 440여 명이 모두 업무에 복귀해 시내버스 382대 모두 운행에 들어갔다.

시내버스가 정상화한 것은 지난해 12월 8일 파업돌입 이후 146일 만이다. 시내버스 회사들은 임시 차고지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있던 버스를

각 회사로 옮기고 차량점검 등을 마쳤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버스노조 민주화 쟁취를 위한 전북지역투쟁본부는 지난 30일 사측과의 잠정 합의안을 전체 조합원 전반투표에 부친 결과와 반수 찬성으로 가결, 정상 운행키로 결정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56명 가운데 374명(투표율 82%)이 참여해 338명(90.4%)이 찬성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회사 측이 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며 노조가입 이후에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키기로 하는 등 5개 항으로 돼 있다.

한편 전주시는 파업 과정에서 제기됐던 시내버스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 규모의 적정성과 사용처의 투명성 확보, 합리적인 노선 조정 등을 포함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탄력

제정 추진위원회 23명 구성

동학 농민혁명(1894년)을 국가 차원에서 기리는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이하 동학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기념일 제정 활동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동학기념일 제정은 각 동학단체와 사업회별로 의견이 달라 그동안 갈등

이 야기됐던 사안으로,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은 국가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공식 구성했다.

정읍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이사장 김영석·이하 동학재단)은 지난 28일 동학기념일 제정을 맡게 될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학계·언론·문화·법조계 인사 등 23명을 선정했다.

추진위원회에는 전국 18개 동학단체가 추천한 학계 전문가 16명, 동학재단 인사 2명, 동학 유족 2명을 비롯해 동학재단이 추천한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위촉하고 3~4차례 회의와 한 차례 공정회를 거쳐 올해 안에 동학기념일 후보를 선정하게 된다.

동학재단은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기념일 제정을 공식 요청, 국무 회의를 거쳐 동학기념일이 확정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한국시멘트, 순창 농공단지에 방적공장

신진공인증 개사(임대전문)

서구 매월동 준공업지역매매

- 대지 : 263평, 신축창고53평, 사무실 26평
건폐율 60% 유통단지
- 매매가격 : 6억2천만원

고흥군 금산면 토지 매매

- 계획관리지역 :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대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광산구 하남공단내 공장매매

- 대지 : 700평
- 건물 : 415평 (공장,사무실,기숙사)
- 전기 : 400KW 9번 도로접
- 매매가격 : 12억5천

북구 동립동 공장(창고)급매

- 대지 : 538평 ■ 건물 : 건물 300평
- 층고 : 9m
- 호이스트 : 2.8톤 3대 하남대로변
- 매매가격 : 12억5천

문의: 016-644-4265, FAX.523-8558

금산공인증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 삼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앞

■ 대지면적

- 약 2,850㎡

■ 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복합 APT 주택가능

-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형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병기구

- ※ 10층 신축건물앞 코너

H.P.011-601-5354

대인동 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 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이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휴 011-602-2532

광주광역시 신봉정동 대인동 소방서리 편